



## 丁亥年 새해를 맞으며...

### 친애하는 회원 및 전력기술인 여러분!

2007년 丁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예로부터 福을 의미하는 “돼지”해인 만큼, 우리 회원 및 전력기술인 여러분 모두 福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감리 및 안전관리 분야 등 전력기술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오신 회원여러분들과 전력기술인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전국의 회원 및 전력기술인 여러분!

어느 신문에서 2006년 한자성어로 密雲不雨가 선정되었다는 기사를 보면서, 지난해가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던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상 최고의 고유가 행진, 환율하락 등은 우리나라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특히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을 답답하게 한 대표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우리 협회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1년을 돌아해보면 회원 및 전력기술인의 권익보호와 협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더욱 견고히 하였던 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내적으로는 지난해 정부에서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제정 추진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제도 완화 등이 검토되었으나, 협회에서 적극 대응하여 동 제도가 현행 존치되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전력기술관리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공동주택의 감리업자 선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감리원의 일자리 창출과 지위 향상은 물론, 감리용역 시장규모를 크게 신장시키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시행에 따른 회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설비 검사관정기준 일시 유보제 도입” 및 “검사항목 간소화” 등을 정부 및 안전공사에 건의하여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조만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주협의회, 대령협의회, 설계협의회, 감리협의회 등에서 요청한 법·제도 개선 건의는 이미 상당부분 개선이 완료되었거나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기 위해 현재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제4회 국제전력전자 및 전기설비전”과 “제3회 전력기술진흥대회 및 전기인의 날” 등의 행사를 성공리에 마침으로써 전력기술인의

# 謹賀新年



역량과 협회의 위상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과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협회 창립 10주년 기념과 함께 우리협회가 자체 회관을 마련한 경점사를 맞은 그야말로 뜻 깊은 한 해였으며, 새로 입주한 협회 회관은 회원들에게 업무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전력기술인을 위한 상설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주인은 회원입니다. 회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협회 발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협회는 회원 여러분의 진정한 보금자리로 자리 잡아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원 및 전력기술인 여러분!

협회는 이제 그동안의 성장을 바탕으로 회원 및 전력기술인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협회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나아가 전력기술인의 위상과 권익을 확고히 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법·제도 개선을 통한 회원 및 전력기술인의 권익 향상과 힘 있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의 규제완화추진 및 경기둔화 등 사회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회원의 경제적 이익과 전력기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전기관계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회원의 민원서비스 강화 및 정보교류 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동안 협회를 통한 각종 확인서 및 증명서 등의 발급, 교육훈련 접수 등이 오프라인을 통해 이루어져 불편하셨던 점을 개선하고자 금년 상반기 중에는 온라인 민원서비스시스템을 도입·시행하는 한편, 협회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회원에게 정보전달은 물론, 회원 상호간 정보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 회원의 기술적 애로사항의 해소 및 지원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협회에서는 그동안 전력기술업무 수행 중 겪게 되는 애로사항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해결해 드리기 위해 “전력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센터 업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인력 Pool을 더욱 체계화

하여 보다 많은 회원이 기술지원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회원 및 전력기술인의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에 더욱 역점을 두겠습니다.

앞으로는 기술전쟁 시대입니다. 기술적으로 앞서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전기 설계·시공·감리 및 안전관리분야 전력기술인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만, 협회내 새로운 상설 교육장 마련을 계기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커리큘럼 개발, 실습실습교육 시설마련 등을 통하여 내실 있는 교육훈련을 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친애하는 회원여러분!

국내 모 경제연구소에서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작년 5.0%의 성장률에 비하여 4.2%로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하여 발표한바 있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경제사정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원과 전력기술인 여러분들도 모두 희망을 갖고 맡은 바 책임과 소임을 다하면서 개개인의 역량을 키우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인생을 즐겁게 만들고 혈압을 낮춰준다는 연구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一切唯心造(일체유심조)라는 말처럼 모든 일은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현재의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함으로써 신뢰받는 전기인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준비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시다.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오면 성공하게 됩니다.

희망찬 새해 아침을 맞이하여 회원과 전력기술인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만복이 깃들어서 소원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2007년 1월 2일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회장 **이희평**